주일 메시지 요약 **2025년 12월 28일**

행함과 응답 딤전5:1-16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 일 행하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새 해에 이런 증거가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해 첫 날부터 우리는 2026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내가 우리 교회의 파수꾼" -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주간 5일부터 10일까지는 매일 저녁 전교인 집중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많은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고 교회와 함께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300% 정신의 삶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견과 상관 없이 나의 기도 제목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기도를 주로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과정이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과정을 생각해야 하고 과정의 기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고 "어떻게" 를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한 해의 나의 삶을 돌아 보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새 해에는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고 승리하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삶의 자세와 응답

1) 오늘 말씀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말씀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일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므로 목사나 사역자들이 특별히 눈 여겨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당연히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2) 세상이 복음을 알게 하고 그 약속으로 구원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하신 것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에는 누림도 포함되어 있고 믿음의 고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영적 전쟁이 또한 기도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이런 영적인 행위 뿐 아니라 육신적인 행동도 기도와 함께 눈에 보이는 응답을 위하여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1-4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5-10계명도 하나님이 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붙여 놓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4)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사람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기록자는 전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하여 인간적 해석으로 성경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기록도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인간 대표로 선택을 받은 모세가 기록된 계명을 받았습니다.
5) 기록도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십계명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위에 있다는 등의 해석은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꼭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6)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으로 보면 될 것이고 그것을 지켜야 할 내용의 방향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십계명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죽음을 면하는 것 같은 개념으로 우

리가 십계명을 많이 오해하였습니다. 뭔가 눌리는 생각 혹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7)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지키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모세 오경 곧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의 요약, 십계명이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근본 언약, 약속의 피를 언약으로 잡고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요 네 인생이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8) 십계명은 근본 언약을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근본 언약을 지키는 행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근본 언약 그리스도의 보혈 자체를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행위를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근본 언약에 대한 이해와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지키는 행위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중요한 것이 행함입니다.

9) 오늘 본문 말씀은 5-10계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말 뿐인 성도가 되지 말라는 메시지 일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 성도님들을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대우하고 젊은 성도님들을 형제나 자매와 같이 대하라. 2절에 특별히 젊은 여자 성도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러 계층의 성도들을 상대해야 하는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10) 육신 계명의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과부에 관한 말씀이 길게 나옵니다. 아마 당시 목회 현장에서 중요한 이슈였지 않나 싶습니다.

11) 그래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또 가능하면 가족이 돕도록 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이고 8절은 조금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도 당시 과부들에 대한 목회가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 오늘도 우리의 행함과 삶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로 살지 않으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하겠고 자녀들에게도 복음과 함께 행함이 같은 중요성으로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행함까지 가야 하고 응답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과 응답으로 할 하나님의 소원까지 가야 끝이 날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돌아 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바른 행함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300% 라는 말은 기도를 300% 풍성히 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진실한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의 기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기도에 성공하고 언약 누림에 성공하여 성경대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